공정과 혁신으로 새로운 KBS
2024 KBS 방송지표

KBS사보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Vol. 768



KBS 제27대 사장 박장범 후보 임명 제청

KBS 이사회(이사장 서기석)는 지난달 23일 박장범 당시 〈KBS 뉴스 9〉 앵커를 제27대 KBS 사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박 후보자는 11월 18일과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KBS 최고경영자는 시청자… 내부 갈등 해소"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는 "공영방송 KBS의 최고경영자는 국민인 시청자"라며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내 통합을 통해 내부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오는 12월 10일 신임 사장에 취임한다. 박 후보자의 임기는 2027년 12월 9일까지 3년이다.

"수신료 징수 안정화 통한 재정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

박 후보자는 KBS의 최우선 과제로 수신료 징수 체계 안정화를 통한 재정위기 극복을 꼽았다.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으로 인한 초기 혼선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TV 수상기 소지자가 빠짐없이 공평하게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현 수신료국 수신료기획부장을 인사청문회 단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수신료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인사"… "양질의 방송 서비스 제공할 것"

박 후보자는 KBS가 수신료를 받는 만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KBS가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양질의 방송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10대 핵심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장범 후보자의 10대 핵심 전략

1. 공정과 중립으로 시청자 신뢰 제고
2. 선택과 집중으로 콘텐츠 경쟁력 강화
3. 재난방송 체계 고도화
4. 공공의제의 주도적 설정
5.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혁신
6.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디지털미디어 추진
7. AI 등 첨단 기술의 방송 제작 활용
8. 글로벌 제작역량 고도화
9. 시청자와의 소통 강화
10. 지역방송 활성화

사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KBS 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장 박 민입니다.

지금 KBS는 경영진 교체기에 서 있습니다. KBS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KBS는 지난 1년간 전례를 찾기 힘든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가 사장에 취임했을 때 KBS는 3대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수신료 분리 고지, 2TV 재허가,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 더구나 2023년도 적자가 500억 원대에 달했고 2024년부터 그 규모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은 1,430억 원 적자로 편성했습니다.

혹독한 고통 분담의 시간이 뒤따랐습니다. 115명의 명예·희망퇴직, 무급휴직, 한시직 직원 대규모 감축, 연차 전면 소진, 간부직 임금 반납 등이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구성원으로서든, 생활인으로서든 감내하기 쉽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KBS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수신료 분리 고지가 전면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달인 8월 수납률이 85.6%, 9월 수납률은 89.8%에 달했습니다. 수신료 미납 시 형사처벌을 받는 영국 BBC의 수납률이 89.7%이고 수천 명의 수신료 징수 직원을 두고 있는 일본 NHK의 수납률이 80%에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과입니다. 앞서 2TV는 4년간 안정적으로 재허가를 받았고 국고보조금도 거의 회복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적자 폭이 예상보다 600여억 원 줄어든 800억 원대에 그칠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예상을 넘어선 수신료 수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 적시된 적자 규모, 수년에 걸쳐 심화된 콘텐츠 경쟁력 저하에 따른 수입 감소, 임금 협상 불발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허리를 졸라매는 노력이 없었다면 적자 규모가 3,000억 원대에 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재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400억 원대의 콘텐츠 전략 펀드를 조성했고, 국가콘텐츠 전략 펀드에도 100억 원 투자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도에는 콘텐츠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원인 광고 수입과 콘텐츠 판매에서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명예·희망퇴직에 240억 원이 투입됐지만 향후 820억 원대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기에 한시직 직원 감축 등의 효과가 더해지면 내년 한 해 400억 원대의 비용 감소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재원이 될 방송·문화 복합 공간 사업도 성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차기 사장과 새로운 경영진이 이 같은 희망을 현실로 만들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지금 미디어 시장의 변화 속도는 가히 파괴적인 수준입니다.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기 사장과 새로운 경영진이 취임과 동시에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진 교체기에 현 경영진과 간부, 직원 여러분들은 빈틈없이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첫째, 일상적인 업무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경영진 교체에 따른 인사 등으로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각종 실수나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둘째, 수행 중인 기본 업무, 추진 중인 업무, 계획 중인 과제 등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정리해 새 경영진과 간부, 그리고 후임자들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셋째, 현 경영진이나 간부들이 해야 할 의사 결정과 새 경영진과 간부들이 해야 할 의사 결정을 잘 구분해 월권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끝으로 직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KBS에 왔을 때 많은 KBS 사원들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KBS에 근무한 사원들 앞에서 온갖 비판을 하면서 전례 없는 비용 절감을 강요했을 때는 불편함을 넘어 모욕감을 느낀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희망과 비전보다는 고통 분담을 앞세웠을 때 존립의 위기감을 느낀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개혁과 혁신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 사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KBS와 KBS인들은 여전히 엄청난 열정과 단단한 소명감, 풍부한 노하우와 무한한 잠재력, 쉽게 퇴색되지 않는 브랜드 파워와 1등 DNA를 품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방치되고, 훼손되고, 분열된 이 역량과 자산들을 제대로 엮어낼 수 있다면 KBS는 세계 초일류 공영방송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헤어짐이 슬픈 건 헤어질 사람들과 더 이상 미래에 대해 교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미래와 비전을 나누기를 기대했는데 제가 부족한 탓에 이렇게 헤어지게 돼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세계 초일류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한 지난 1년은 제 언론인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래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란 말이 있습니다. 미래는 그냥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맞이할 수 있는 희망이라는 뜻일 겁니다. KBS와 KBS인들은 이미 '미래'를 '시간'이 아니라 '방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늘 KBS를 지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KBS 사장 박 민 올림



KBS 뉴스가 새로워졌습니다
평일 〈KBS 뉴스 9〉, 〈KBS 뉴스광장〉 앵커 교체

11월 4일부터 KBS 대표 종합뉴스의 새 앵커들이 시청자를 찾았다. 〈KBS 뉴스 9〉의 최문종 기자, 〈KBS 뉴스광장〉의 김나나 기자와 김승휘 아나운서가 그 주인공들이다.

〈KBS 뉴스 9〉 새 앵커에 최문종 기자

〈KBS 뉴스 9〉 진행을 맡은 최문종 기자는 2004년 공채 30기로 입사해 정치외교부, 경제부, 사회부 등을 거쳤으며, 2011년 2TV 〈아침뉴스타임〉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2년 넘게 주말 〈KBS 뉴스 9〉과 최근까지 〈KBS 뉴스광장〉 앵커로 활약하며 균형 잡힌 시각과 안정적인 진행으로 주목받았다.

〈KBS 뉴스광장〉 새 앵커에 김나나 기자·김승휘 아나운서

〈KBS 뉴스광장〉은 2015년부터 3년 4개월간 간결하고 매끄러운 진행으로 실력을 검증받은 바 있는 김나나 기자가 다시 앵커를 맡았다. 김 기자는 2003년 입사해 경제부, 사회부, 국제부 등을 거쳤으며, 최근 KBS N의 재난전문 채널에서 〈재난안전 119〉도 진행했다.

함께 평일 〈KBS 뉴스광장〉 앵커를 맡은 김승휘 아나운서는 2008년 입사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유만만〉 등 데일리 프로그램을 맡으며 시청자에게 밝고 친숙한 이미지로 자리매김한 실력파 진행자이다.


최문종 기자

〈KBS 뉴스 9〉 최문종 기자

"9시 뉴스 앵커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미디어 지형의 변화 속에서 시청자들의 선택권은 더 넓어졌다. 시청자들이 수많은 뉴스 가운데 우리 뉴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흥미롭게, 믿음직하게, 보기 좋게, 명료하게 뉴스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어려운 취재 환경 속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동료 기자들을 돕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시청자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살피고 그러한 흐름 안에서 공영방송 뉴스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KBS 뉴스광장〉 김나나 기자

"아침에 일어나서 TV 리모컨 대신 스마트폰을 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스마트폰보다 다양한 정보를 담지는 못하더라도 잘 정리된 고품격 아침뉴스가 〈KBS 뉴스광장〉에 있다. KBS 직원들이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다. '정갈한 아침상'처럼 정성을 다해 뉴스를 만들어 가겠다."


김나나 기자


김승휘 아나운서

〈KBS 뉴스광장〉 김승휘 아나운서

"처음으로 종합뉴스 앵커를 맡게 되었다.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 MC로 쌓아온 친근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제는 뉴스광장에서 보다 알기 쉽고 듣기 편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 매일 아침을 여는 KBS의 첫 뉴스인 만큼 한 번 더 체크하고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이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저출생 추세 반전 가능한가' 특집방송… 시청자 참여 영상 공모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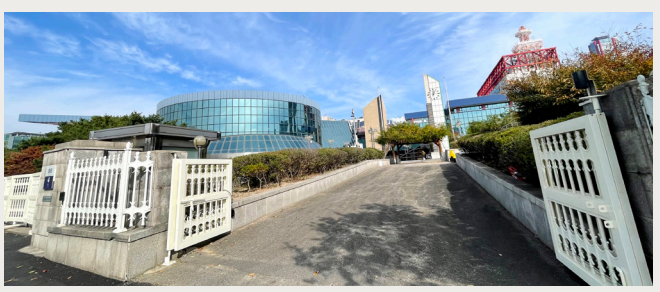
KBS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이 11월 11일과 12일 4번째 저출생위기대응방송주간을 마련했다. 지난 12일 밤 10시 1TV 특별 생방송에서는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과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등이 출연해 '저출생 추세 반전 가능한가'를 주제로 근본적인 인구 위기 해법을 모색했다.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세계의 저출생 대응 사례' 특집을 11일부터 닷새 동안 5회 방송했다. 〈6시 내고향〉에서는 전국 최초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경북 경산의 돌봄 프로그램 'K 보듬 6000'을 소개하는 등 저출생 관련 연속 기획을 이어갔다.

'우리 아이 행복한 순간' 시청자 영상 공모

KBS 시청자 영상 공모전 '우리 아이 행복한 순간'이 오는 11월 24일까지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KBS '우리아이 우리미래' 홈페이지 내 시청자 영상 공모전 게시판에 직접 촬영한 1분 내외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 가운데 16편이 최종 선정되며, 시상금은 총 1,050만 원으로 ▲대상 1편 300만 원 ▲최우수상 2편 각 200만 원 ▲우수상 3편 각 100만 원 ▲장려상 10편 모바일 상품권 각 5만 원이다. 공모전 수상작은 오는 12월 저출생위기대응방송주간부터 '우리아이 우리미래' 캠페인 영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청자에게 더 가까이" KBS 홀문 개방… 시청자 쉼터로



'KBS 홀문'이 10월 21일부터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 시청자들에게 개방됐다. KBS홀 광장이 시청자들의 쉼터가 되면서 시청자 안전을 위해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광장 앞 난간 등 안전 시설물도 보강됐다.

KBS홀로 이어지는 대중교통 시설도 개선된다. KBS 홀문과 인접한 여의서로 보도는 서울시 보행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지난달부터 폭을 2미터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KBS 홀문 인근에는 버스 승강장도 신설될 예정이다.

11월의 주목할 프로그램

성형외과 의사와 MZ 형사의 공조 추적극 〈페이스 미〉



냉정한 성형외과 의사 '차정우(이민기 분)'와 열정적인 강력계 MZ 형사 '이민형(한지현 분)'이 범죄 피해자 재건 성형을 통해 감춰진 사건의 진실을 좇는다. 피해자 재건 성형 전담 의사와 담당 형사로 만나게 된 두 주인공은 상반된 성격으로 인해 사사건건 앙숙처럼 부딪히지만, 점차 호흡이 잘 맞는 진짜 파트너로 거듭난다. 11월 6일 첫 방송 이후 〈페이스 미〉는 시청자들로부터 '성형'과 '범죄'라는 이색 조합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 가는 과정이 색다른 재미를 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형외과 의사에게 직접 자문받은 배우들의 실감 나는 수술 연기도 호평을 얻고 있다.

▶ 매주 수·목요일 21시 50분 KBS

'레전드 과거'와 '현재'가 만들어낸 '듀엣' 〈미싱 (me + sing)〉



전설적인 가수들의 과거 라이브 무대 영상은 팬들에게 끊임없이 회자되며 높은 조회 수를 갱신한다. 바로 그 과거의 라이브 영상과 현재의 라이브가 공존하는 듀엣 무대가 펼쳐진다면 어떨까? 〈미싱〉은 한 시대를 빛낸 가수의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엮어내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후면 빔 프로젝터에서 쏜 영상을 특수 필름에 투사하는 '리어 프로젝션'과 화질을 높이는 '업스케일링', 고난도 '오디오 믹싱' 등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신개념 무대를 시청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도는 시청자에게 신선하고 놀라운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 11월 19일, 26일 20시 30분 KBS

'애니캠' 통해 반려동물 문화 선도 〈동물은 훌륭하다〉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가슴 뭉클하고 끈끈한 유대 관계부터 시청자들이 깜짝 놀랄만한 동물 관련 사건·사고들까지 영역을 확장한 〈동물은 훌륭하다〉가 비반려인을 대표하는 데프콘, 허를 찌르는 재치로 웃음을 주는 은지원, 그리고 독보적인 예능감을 지닌 장도연의 진행으로, KBS이기에 가능한 순도 높은 재미와 감동, 정보를 전한다. 〈동물은 훌륭하다〉는 동물들의 일상이 찍힌 홈캠이나 CCTV, 블랙박스 등 '애니캠(ANImal Cam)'을 통해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반려동물은 물론 야생동물과 희귀동물까지 폭넓게 다루면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동물 관련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을 제공한다.

▶ 11월 16일 10시 35분 첫 방송 KBS

대한민국 단막극 40년의 감동과 역사 〈KBS 드라마 스페셜 2024〉



국내 방송사 중 유일하게 40년간 명맥을 이어온 대한민국 대표 단막극 시리즈 〈KBS 드라마 스페셜〉이 2024년 라인업을 공개했다. 올해 편성된 작품은 ▲〈사관은 논한다〉(11.5.) ▲〈핸섬을 찾아라〉(11.12.) ▲〈영복, 사치코〉(11.26.) ▲〈모퉁이를 돌면〉(12.3.) ▲〈발바닥이 뜨거워서〉(12.10.)로 사극, 로드무비, 시대극, 로맨스, 힐링 성장드라마 등 다채로운 장르로 구성됐다. 수백 대 일의 경쟁을 거쳐 'KBS 극본공모'에 당선된 신인 작가들과 뜨거운 열정을 드라마 현장에 바치고 있는 젊은 연출자들의 조합은 'K-드라마의 등용문'인 〈KBS 드라마 스페셜〉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 매주 화요일 22시 45분 (총 5회) KBS

가을밤을 수놓은 음악 무대

3만 명의 글로벌 관객을 열광시킨 〈뮤직뱅크 인 마드리드〉



지난 4월 벨기에 공연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뮤직뱅크 월드투어 콘서트가 지난달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뮤직뱅크 인 마드리드〉는 배우 박보검의 진행 아래 라이즈, 키스오브라이프, 엔믹스, 보이넥스트도어, 피원하모니, 마마무+, 에스파, 엔하이픈 등 8개 국내 최정상 그룹이 무대를 꾸몄다. 〈뮤직뱅크 인 마드리드〉는 공연장 측의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로 급박하게 장소를 변경하면서도 팬들과의 약속을 무사히 지켜내, 전 세계 87개국에서 모인 3만여 명의 글로벌 관객을 열광시켰다. 공연 현장의 뜨거운 열기는 10월 26일 밤 KBS 2TV를 통해 시청자들에게도 생생하게 전달됐다.

전 세계 K-POP 팬들의 경연 오디션 〈2024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K-POP을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이 참가해 노래와 퍼포먼스 실력을 겨루는 한류 문화축제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이 올해로 13회를 맞아 지난 10월 24일 열렸다. 올해는 전 세계 63개국 64개 지역에서 글로벌 예선을 거쳐 결선에 오른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미얀마 출신의 8개 팀이 경합을 벌였다. 전체 3,000여 석을 가득 채운 국내외 K-POP 팬들은 열렬한 박수와 환호로 경연에 나선 팀들의 열정적인 무대를 응원했으며, 이날 경연은 11월 7일 밤 KBS 2TV를 통해 방송됐다.

KBS사보
www.kbs.co.kr
발행인 박 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문의 및 구독신청 02)781-2113, 2814 / kbssabo@kbs.co.kr
편집인 김덕원 취재 김나미 윤영란 이하경 김태두 김만화 사진 장병희 홍정환 디자인·제작 김채원 도두커뮤니케이션
〈KBS 사보〉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